

지역 소식통

2019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지난 2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조민규 의원(대표 위원)과 류필상, 조재길, 이진아, 이병섭 등 재직 및 회계분야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급급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게 될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규철 의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시기에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직 수행에 감사하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등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 총재 부안군 인재육성재단 후원

블랙야크 회장이자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6대 강태선 총재와 권혁 전부연맹장이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장소인 잼버리공원과 작소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정기후원회원에 가입했다.

강태선 총재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 내는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정기후원회원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강태선 총재의 깊은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후원하신 분들의 뜻을 깊이 받들어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물고기가 키운 채소 첫 출하

고창 '아쿠아포닉스' 농가, 유기물로 작물 재배 '눈길' 물고기양식·수경재배 결합, 미래농업 대안으로 부각

고창군의 한 농장이 물고기 양식장에서 나온 유기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지난해 5월 시설 착공 이후 첫 출하를 시작했다.

고창군 성내면 소재 아쿠아포닉스코리아(대표 이영성)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법인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해 10여종의 채소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게 됐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로, 물고기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농법이다.

이영성 대표는 "아쿠아포닉스에서 자란 채소는 실내 재배의 특성상 친환경으로 깨끗하고 맛과 향이 좋으며, 식감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편만 아니라 아삭아삭해 다른 노지 채소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며 "아쿠아포닉스의 순수한 자연재배로 안전한 먹거리,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오염과 농도가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낱씨와 계절 관계없이 양질의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는 무비료, 무농약의 유기농으로 자연 증발하는 물만 보충하면 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이영은 과장은



고창군 성내면 소재 아쿠아포닉스코리아(대표 이영성)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재배한 채소를 첫 출하했다.

은 "전라북도 최초 아쿠아포닉스 시설에서 재배된 친환경 채소를 많은 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고창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특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맛볼 수 있으며, 아쿠아포닉스 교육과정이 개설돼 언제든 예약을 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2청사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청사 출입문을 일원화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읍시 농기센터, 청사 방역 강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정읍시 제2청사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청사 방역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농기센터는 청사 출입문을 일원화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로써 정읍 내 열화상 카메라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정읍시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정읍터미널 내 열화상 카메라는 다음 주 중 설치 예정으로 앞으로 총 5개소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청사 주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전면 통제하고 일원화된 출입구 앞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후 청사에 출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독기를 활용한 자체 방역 ▲청사 내 시설이용 제한 ▲역학조사 상황실 운영 ▲민원대응 개인소독장비 구축 ▲교육·행사 취소 및 연기 ▲서면심의대체 등 청사 내 바이러스 감염 요소 원천차단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내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경계를 강화해 ▲부서별 전담인력운영 ▲전문 방역업체 위탁 ▲자가 격리·재택근무 등 공무원 복무 이행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욱 소장은 "청사 내 시설이용과 출입 제한 조치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민원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동'

인프라 구축에 54억원 투입 수돗물 관리 감시기능 강화

정읍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국비 38억원을 포함해 총 54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의 유량·수압·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된 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취수원부터 각 세대까지 상수도관에 정밀여과장치·자동 수질측정 장치·소규모 유량 감지 시스템 등 수돗물 관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언제든 수질 전광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수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수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수돗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용 미생물 공급... "희망농 신청하세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가 작물 재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공급희망자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유용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 농작물에 필요한 당·질소 등을 합성함으로써 생육을 좋게 한다. 또, 살균·살충 물질을 생성해 병해충 경감에 도움

을 주고, 토양 속 무기성분 활용성을 높여주어 토양개량에도 효과가 좋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용미생물은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4종을 각각 배양해 21, 51 형태로 소포장해 주 1회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누구나 해당된다. 이달 31일까지 미생물배양실(제2청

사)이나 지역별 농업인상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나 농지원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업용 미생물의 효과와 작물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이 갖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토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작물 생장에 도움을 주어 병해충 경감과 증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재배농동기 앞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부안군청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공급용으로 계약재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가 확보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를 위하여 소비촉진 운동을 전파도와 함께 추진하였다.

22개 부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40여 만원의 친환경농산물이 구매되었다. 공급단체로는 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 부안군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을 맡았고, 한살림·아이쿱생협 기준대비 낮은 가격으로 25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이 구매되었다. 이같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운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재배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이 운동에 동참한 덕분에 마음도 따뜻해 졌다며 반기고 있다.

이번 운동에 참여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 작은 것도 함께 손 잡고 위기극복에 나선 직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